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시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박진성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6:13-21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랑의 실천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특송 / 구은강 집사 "변명"	
	헌신과 나눔	봉 헌 / 오정은 집사, 구 민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
		삶과 세상으로

(*표는 모두 읽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정홍렬 목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12:1-14
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도와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등등."

어찌 보면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절기가 아닐까 한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강절 기간이 연말 분위기에 들떠 지나가는 걸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비단 금식만이 아닌, 끊임없이 소비하면서 방만하고 분주해진 우리의 일상을 정리하고 되돌아 보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사순절을 보낸다면 참 값지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 정경환, 「오늘」 15호, 문화선교연구원

묵상에세이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순절 말씀묵상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기대합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4/7)

시 103편 하나님의 사랑. 시 41:1-12, 요 12: 20-33
제 29일 (4/8 월) 마 24: 1-14 마지막 때
제 30일 (4/9 화) 마 25: 1-13 열 처녀의 비유
제 31일 (4/10 수) 마 25:14-30 달란트 비유
제 32일 (4/11 목) 마 25:31-46 최후의 심판
제 33일 (4/12 금) 마 26: 1-16 영원한 기념
제 34일 (1/13 토) 시 139편 하나님의 보호와 심판

사순절은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1.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으시다.
2. 매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집시다.
3. 특별금식과 절제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다.

한 주간의 기도

"사순절 기간, 뒤돌리고 부서진 나의 삶 자체를 주님께 드리고 고백함으로 더 깊이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과 기도로 대화할 때 절망에서 자유하게 됨을 믿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신앙고백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홍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가 의로워 함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남시할까요?

사순절 기간인 40일은 금식, 희생, 고행이라는 단어와 오버랩된다. 교회에서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김 집사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취미로 꼭 빠져 있는 남시를 절제해 보리라 마음 먹어 본다. 주일 예배마저 빠지고 남시에 매달리곤 했던 그는 '이번에야말로...' 하며 수없이 결심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경험이 있는지라 조언이라도 얻고자 목사님을 찾았다.

김 집사: "목사님,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남시를 끊어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사실 여러 차례 실패하셨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남시를 진지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남시하러 가고, 남시대를 드리우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면서요. 남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김집사: "예?"

그 뒤 김 집사님은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다. 그간 남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상한 결심이 도리어 남시대를 잡는 재미를 시큰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김집사: "목사님, '남시를 즐겨도 좋다. 하나님도 좋아하신다. 아버지의 기쁨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더니 무언가 마음이 즐거워지고 편안해지면서, 이상하게도 남시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먼저 나더군요. 이전 사순절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 "처음 사순절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을 기준해서 세례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40시간을 지켰고, 그것이 교회가 자리잡아가면서 40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기간 동안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에 동참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죠. 하지만 절제로 인한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성도들을 인도하는 기간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금식이나 절제라는 행동에 담겨 있는 정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순절 기간 동안 필요한 절제는 번잡함을 줄이고 생활과 정신의 안정을 유지하는 단순함이 아닐까요? 사순절은 단순히 '참아내고 견디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 기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김 집사: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목사님: "이런 건 어때요? 서로 말하기 전에 진실한가, 필요한가, 공손한가, 세 번 생각하기, 질투나 불평을 피하기. 지나친 텔레비전 시청이나 인터넷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중요한 휴식과 묵상의 시간을 넉넉히 갖기. 화려한 쇼핑이나 외식을 금하고, 과식하지 말고 평소보다 약간 적게 먹어 몸에 부담을 줄이기. 매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길 바라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며 작은 일이나 어려운 일에도 그 순간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다고 기도하기. 일과 중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신다'고 반복해서 말하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4월은 "소망의 달"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라.

1.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 구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이뤄나갑시다.
2. 오늘은 Christ UMC의 Service Day입니다.
3. 오늘은 주일오후 성경공부(탐사역이란?)를 휴강합니다.
4. 정기제직회: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모입니다.
5.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는 계속됩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월-금, 8:00pm)와 목요일(4/18) 성찬예식도 참여바랍니다.
6.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며, 성찬예식을 가집니다.
7. WOW 여성 모임 (토요일 11:00am)에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8. 춘계심방 계획이 오늘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9. 선교사 목사 부부 초청 선교/찬양집회와 여성 회복세미나(5/17-19)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0. 유초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생일 축하♥고순제(4/14), 장영현(4/16)

예배와 양육, 명종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축복된 교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섬김이

주일에배기도	3/31	4/7	4/14	4/21
	최선윤집사	박진성집사	구 민집사	정홍렬목사
금요일에배기도	4/5	4/12	4/19	4/28
	오정은집사	정홍렬목사	최내권집사	최선윤집사
주일헌금위원	3/31	4/7	4/14	4/21
	구 민집사/오정은집사	김훈태집사/홍정임집사		
주일안내위원	3월	4월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려면? / 고린도전서 11:3-14**

세상과 문화를 향한 성도의 자세는 무조건적 적대시 혹은 맹목적 수용이 아니다. 벽을 쌓고 고립되지 말아야 한다. 바르고 굳건한 신앙으로 수용해야 할 문화는 수용하면서도 세상을 향해 구원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고린도의 여자 성도가 머리 수건을 벗어버린 것은 당대의 문화와 상식에서 벗어나는 과도한 일이었다. 상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하지만, 교회와 성도가 상식적일 때 세상은 복음에 저항감과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복음전파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문화의 벽을 복음적으로 넘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랑의 실천 / 고린도전서 16:13-20

고린도교회가 직면했던 많은 문제들의 근원은 결국은 믿음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해결책은

첫째 믿음

둘째 사랑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상대방과 공동체를 우선할 때 어떤 문제든 해결 나갑니다. 삶이 영킨 실타래와 같을 때 궁극적인 실마리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랑의 실천 / 고린도전서 16:13-20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를 향해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권면입니다. 이 마지막 권면은 영킨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결정적인 실마리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 깨어 있었다고 해서 오늘은 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일 깨어 있을 예정이기에 오늘은 자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복음에 기초하여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교회가 문제투성이가 된 것은 그들이 깨어 있지도 않고 믿음에 굳게 서지도 않고, 남자답게 강건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 시험에 빠져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에서 벗어 나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중심을 잃고 파벌이 생기 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치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사랑이 열지 못할 문이 없고 사랑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이 덮어주지 못할 허물이 없습니다. 만약 고린도의 성도가 사랑으로 행하였다면 서로를 송사하여 세상 법정에 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만약 고린도의 성도가 사랑으로 행하였다면 서로 파를 나누어 싸우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편 네편이 아니라 모두가 한 편이 됩니다. 만약 고린도의 성도가 사랑으로 행하였다면 자신의 자유만을 내세우며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자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자유만을 무조건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방과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였을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대한 편지의 마지막으로 믿음과 사랑을 권면했습니다. 고린도교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의 근원은 그들이 믿음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곳에 믿음을, 사랑이 부족한 곳에 사랑을 채워 넣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킨 실타래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아무데나 여기저기 손을 대었다가는 더 복잡하게 영킨고 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궁극적인 실마리는 믿음과 사랑뿐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있는 문제도, 사업터에 있는 문제도, 인간관계에 있는 문제도, 교회에 있는 문제도 실마리는 항상 믿음과 사랑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상대방과 공동체를 우선할 때 어떤 문제든 해결 나갑니다. 삶이 영킨 실타래와 같을 때 궁극적인 실마리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네 영혼이 참 돌림 같이 내가 번사에 참되고 기뻐하기를 간구하도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기쁨, 화평, 나눔

April 7,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2019년 4월 7일

5-14호

소망의 달
믿음성장 / 신앙생활 성숙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뿐입니다 ♡